

부처님이 있어 행복한 6월

불경, 사경, 조각 등 국내외 전시 잇따라

부처님오신날은 지났지만 6월에도 여전히 풍성한 장르의 불교 미술 전시를 국내외에서 만날 수 있다.

우선 고려불화를 유화로 재현하는 강록사 화백의 '고려불화 초대전'이 6월 20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미술관에서 열린다.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60주년' 기념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강씨는 100호 크기(높이 162cm)의 '수월관음'을 비롯해 '아미타여래', '아미타삼존', '아미타구존', '지장보살' 등 30여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특히 머리카락처럼 정교한 '사라그물망으로 된 옷'을 걸치고 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은 눈여겨 볼만하다. 실제로 터치가 붉은 유화로 '사라'를 그리기 위해 강씨는 제일 가는 서예붓의 털을 모두 만도칼로 자른 다음 3-4 가닥만 남겨서 작업했다.



강록사 화백의 '수월관음도'.

강록사 화백은 "고려불화의 형태나 화려한 색채 등은 가히 세계적이지만 현재 거의 일본에 건너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우리 곁에 영원히 두고 싶은 중종에서 고려불화 재현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33)462-2304

- 강록사 화백(6월 20일 까지)**
- '고려 불화 초대전' 만해마을 미술관**
- 원웅스님(6월 1일~6일)**
- '화엄경 금니 사경전' 대구 문화예술회관**
- 남용철 화가(6월 2일~8일)**
- '살과 자연 그리고...' 서울 경인미술관**
- 김호연 교수(6월 12일 까지)**
- '달마도에 담겨진...' LA아스트 갤러리**

원웅스님(지리산 벽송사 조실) 도6월 1~6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화엄경' 금니(金泥) 사경展'을 개최한다. 6만자 불경글자 100여점, 사경작은 80권의 병풍형 책자 형태로 길이로 펼쳐면 1,300m에 달하는 대작이다.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만도 10년이며, 사용된 금의 양은 4kg, 붓도 60자루 이상 소진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아심경>과 <금강경>의 금니사경, 금니 탑다라니, <화엄경>금니부처, 선사와 목서 등 160여점이 함께 벽에 걸린다. (055)962-5662



원웅스님의 '화엄경' 금니사경(왼쪽). 김호연 교수의 '달마' (오른쪽).

고 달린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구조로 변신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풍경' '청죽' '만추'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이 전시회에서는 은행나무로 곁게 판 '석가모니삼존불' '탐' '미륵보살반가상' 등 불교조각 작품들도 20여점 선보인다. (02)381-8445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시회가 기획된다. '달마도에 담겨진 무념무심의 향기로 만나를 찾는다.' 김호연 교수(동국대 미술학부)에겐 90년 초 뉴욕 교환교수 시절 5개월간 아무 작업도 않고 흰 벽만 바라본 시간이 있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대상을 '무(無)'화 화두에서 간접히 찾으면서 화폭에 옮긴 그림이 바로 벽으로 그린 드로잉 '달마'였다. 그때부터 김 교수는 선불교를 처음으로 동양삼국에 전파한 달마대사를 화두로 삼아 다양한 달마도를 그려대기 시작했다. 그 결실이 바로 '생활속의 선'을 주제로 한 달마도 전시회다. 신발을 신 장대에 매달고 가는 달마, 면벽 좌선에 달마, 이웃집 아저씨처럼 익살스러운 달마 등 각각각색의 달마도와 조각 50여점이 전시된다. 6월 12일까지 미국 LA아스트 갤러리. (213)972-0995

글=김주원 기자(jkim@buddhapia.com)



'오케스트라 아시아' 부처님오신날 특별연주회를 보고

3천여 객석 한마음, 부처님 향기로 가득

"사람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데 화음(和音)을 이루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이 음악회를 계기로 아시아 삼국은 물론 온우리가 화음의 세계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5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중국·일본 민족악단 '오케스트라

크스남께서 적절한 표현을 찾고 계신데 시봉하는 분들이 모시고 나갔다. 도올 김용옥 선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좋았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시원치 않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좋았습니다. 불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오케스트라 아

협화음의 세상을 화음의 세상으로 바꾸는 음성공양 그리고 소리법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중일 세나라의 전통음악 특성이 살아 있으면서 세나라의 악기 소리가 서로 화음을 이룬 연주에 객석은 박수와 환호를 내지 않았다.

이날밤 다시들은 교성곡 '붓다'는 또 새로웠다. 중앙대 최향순 교수가 안무한 여러개의 큰 북 공연이 희망, 승리, 환희를 구가하는듯 붓다의 무대를 더욱 빛냈다. 박범훈 교수에게 질문했다. "대사를 마친 소감은?"

"공허합니다. 연주를 마친 뒤에 그 공허함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텅 빈 느낌입니다." 그것은 공허 속의 충만이 아닐까? 마치 허공 속의 부처님 향기(佛香)처럼.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

불협(不協)의 세상 화음(和音)세상으로 바뀌길...

라 아시아'의 '불향(佛香)' 연주회가 끝난 뒤 만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범상스님은 이렇게 축사를 했다. 3천여 객석과 3백여 연주자오케스트라단 75명, 합창단 240여명이 한마음이 된 그 현장에는 백세를 바라보시는 석주노스님도 계셨다. 스님께 여쭙었다. "오늘 음악회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그 뒤랄까..."

시아'가 울며 처음으로 불교음악회를 연 것은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의 불심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려 큰 사람의 불심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교 인연이 깊은 한중일 3국의 '불향' 공연이 중국 일본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될 바란다.

한중일 삼국의 불교계가 지원하여 불

국립중앙박물관 봉축 특별展

금동삼존불상, 사리 등 6건 22점
조선 초기 조각기법 눈여겨 볼만

10월 회수했던 금동삼존불상 등 도난 문화재 22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우)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특별전 '중생을 향한 구원의 손길'展을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화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은 전라남도 순천시 석탑부재 속에 있던 유품로 청동 불감(佛

龕·불상을 안치하는 소형 불전과 금동삼존 불상, 1468년이라는 제작연대가 기록된 발원문, 사리, 복장유물 등 총 6건 22점. 이들은 도굴범에 의해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에 출품돼, 한 때 매매가 시도되기도 했던 조선시대 불교미술품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금동삼존불상은 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배치한 지장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상으로 이루어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유행한 구성양식을 따랐다. 이러한 양식은 1476년 조성된 전남 강진군 무위사 극락전의 목조아미타삼존불로 이어진다.



금동삼존불상과 청동불감(사진 우).

이 삼존불은 단정하고 정제된 조각기법으로,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유진 기자 e_uxist@buddhapia.com

南北 불교 관련 학자들 한자리

8월 19일 국제학술회담 개성서

남북불교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담이 8월 19일 북한 개성에서 열린다. 현대종교학연구소(소장 김기원)가 주최하는 '남북불교 교류사상 처음으로 남북불교 공동 국제학술회담을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열기로 했다. 5월 24일 밝혔다. 북한의 영동사북원위원회와 공동으로 개

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영동사 북원 회향과 대각국사 의천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다. 남측의 리영자,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와 북측 윤국일, 리창언 사회과학원 교수, 리의화 조선문화보존국 지도국장, 일본 다이소대학 다다교본(多田孝文)교수 중국 화동사범대학 시에준메이(謝俊美)교수 등 7명의 불교관련 학자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박봉영 기자

6면 상식 퍼즐 정답

관	결	좌	가	칭	빈
불	가	사	의	공	명
부	부	경	사	유	도
상	과	부	경	지	문
		루	비	백	하
어	머	나	개	월	부
리	삼	국	지	지	
대	기	법	장	생	불
하	사	인	전	식	도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과옥조)와도 같은 그 제1계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로인 이 오막막세 (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문의처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견누비엔(의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마	250,000
면(의물), 광복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마	140,000
무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마	180,000 ~ 250,000
모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마	140,000 ~ 170,000
마(의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마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목베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숙터미널 중간 동부영양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졸락동시

(참선·부처님 오심법, 자승단전오심법, 짜크라 여는법)

- 쪼그리고 앉아 배꼽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 액난의 화병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짜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염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제는 중단전 짜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짜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잘라내 풀리게 하여 순간 수승화강이 되어서 머리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쳐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고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염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배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쭉거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 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수련일시: 매주 목요일 낮 1시, 저녁반: 오후 8시
☞ 수련비: 임회비(만원), 수련비(월: 3만원)
☞ 오시는 길: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차가져 잘 쉬는법" 책 5월 출간 예정